

정조(正祖)의 장서인(藏書印)*

- 규장각 소장 조선본(朝鮮本)을 중심으로 -

김영진 ** · 박철상 *** · 백승호 ****

-
- | | |
|---------------|------------------|
| 1. 서론 | 4. 정조 장서인 조사의 성과 |
| 2. 정조 장서인의 종류 | 5. 향후과제 |
| 3. 정조 장서인의 특징 | |
-

초록: 정조는 조선시대 역대 임금 중에서 인장을 가장 애호했고, 다양한 인장을 사용한 임금이다. 본 논문에서는 장서인을 통해 정조의 인장에 대한 애호의 정도를 확인하고, 그의 독서 편력과 장서를 재구해 보았다. 정조가 조선본에 찍은 장서인은 71종이 확인되었다. 이를 인문의 내용에 따라 분류하면 별호인(別號印) 20종, 신분인(身分印) 25종, 재관인(齋館印) 6종, 수장인(收藏印) 7종, 감상인(鑑賞印) 1종 한문인(閑文印) 12종이다. 또 정조 장서인의 특징을 인문(印文), 장서인의 위치, 장서인의 사용 방법의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정조는 민간의 사대부들과 다른 방식으로 인장을 사용하기를 원했고, 이러한 점은 그의 장서인의 특징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즉, 정조는 일반 사대부 장서인의 핵심인 성명인(姓名印)과 표자인(表字印)을 사용하지 않았다. 대신에 그는 현호(軒號)를 새긴 인장과 자신이 세손, 임금임을 드러내는 인장을 주로 사용하였다. 또 조선시대 문인들의 장서인은 대부분 우측 하단의 광곽에 붙여 위로 찍어 올라간다. 그런데 정조의 장서인은 1~2행을 비워둔 채 2~3행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등극 후에는 우측 하단의 광곽에 붙여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정조 장서인에 대한 조사는 정조 장서인의 표준을 확정 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우선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또한 정조 장서의 규모와 장서의 구성 현황을 살필 수 있다. 아울러 기준에 잘못 판독한 장서인을 바로잡을 수 있다. 그러한 점에서 본

* 본 논문은 김영진 외, 『장서인을 통한 조선본 정조 장서인의 재구성 및 그 활용 방안』 보고서, 성균관대학교 산학협력단, 2014의 내용을 발전적으로 서술한 것이다.

** 성균관대학교 한문학과 부교수.

*** 고문헌연구가.

**** 한남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조교수.

연구의 조사 대상에 정조 장서의 전체가 포함되진 않았지만 향후 정조 장서인 연구에 초석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핵심어 : 정조, 장서인, 규장각, 조선본, 국왕

1. 서론

인장의 역사는 3천 여년을 헤아리지만 처음부터 문인들이 직접 인장을 새기지는 않았다. 초기의 인장은 새김의 어려움으로 인해 전문적인 장인(匠人)들이 인장을 만들었고, 석재(石材)가 인장의 재료로 사용되면서 문인들이 직접 새기기 시작했다. 또한 인장이 시서화(詩書畫)와 결합하면서 문인들의 아취(雅趣)의 상징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고려시대부터 문인들이 인장을 사용한 흔적이 남아 있기는 하지만, 임진왜란을 기점으로 본격적인 문인 전각가가 등장하였다. 대표적 인물이 청음(淸陰) 김상현(金尙憲, 1570~1652)과 미수(眉叟) 허목(許穆, 1595~1682)이다. 이들은 명나라 전각(篆刻) 문화를 흡수하여 조선후기 문인 전각의 가장 큰 두 줄기를 형성하였다. 허목은 미수전(眉叟篆)이라는 독특한 전서(篆書)를 구사했는데, 이를 인문(印文)에 사용함으로써 남인(영남 남인 포함)들에게 절대적인 지지를 받았다. 김상현의 인장은 노론과 경화세족을 중심으로 꾸준히 그 맥이 이어져 갔다. 이후 정조(正祖)시대를 거치면서 조선시대 문인들의 인장은 변화를 맞이했다. 군사(君師)를 자처한 정조가 인장의 사용을 즐기면서 전각 문화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 넣었다.¹⁾ 정조는 서책에 찍는 장서인, 서화에 낙관을 위해 찍는 인장, 편지 봉투를 붙이고 찍는 봉함용 인장 등 매우 다양한 인장을 사용하였다. 정조는 조선시대 임금으로는 유일하게 개인 장서인을 사용하였다.²⁾ 정조의

1) 조선시대 인장의 흐름에 대해서는 박철상의 「조선후기 문인(文人)들의 인장(印章)에 대한 인식(認識)의 일면(一面)」(2010 『한문교육연구』 35호, 한국한문교육학회) 참조.

2) 정조 이전에도 임금의 인장으로 알려진 경우가 있지만 그것은 어필임을 표시하기 위해 새겨 찍은 것으로서 임금 개인의 인장으로 보긴 어렵다. 현종의 경우에도 인장에 대한 기호가 남달랐고 장서인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명확히 현종이 사용한 인장을 찍었다

장서인이 찍힌 책을 분석함으로써 당시 인장 문화는 물론, 그의 독서 편력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의 장서인에 주목할 수밖에 없다. 이를 위해 먼저 정조 장서인의 종류를 확인하고 인문(印文) 분석을 통해 그가 사용한 인장들의 의미를 살펴봐야 한다. 이를 통해 정조의 조선본 장서를 재구하고, 그의 독서편력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이번 분석은 조선본에 남아 있는 장서인만을 대상으로 하였다.³⁾ 총 266종의 정조 장서인이 남아 있는 책들을 조사했는데, 이 중 244종이 정조 등극 이전에 본 책이고, 22종은 정조 등극 후에 읽은 책이다. 여기서는 266종 전체를 대상으로 하지만, 분석은 주로 세손시절의 서책을 대상으로 한다.

2. 정조 장서인(藏書印)의 종류

정조가 조선본에 찍은 장서인은 모두 71종이다. 이를 인문의 내용에 따라 분류하면 별호인(別號印) 20종, 신분인(身分印) 25종, 재관인(齋館印) 6종, 수장인(收藏印) 7종, 감상인(鑑賞印) 1종 한문인(閑文印) 12종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여기서는 중국본에 남아있는 장서인이나 기타 기관에 소장된 조선본에 남아 있는 장서인은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인영(印影)은 별표에 표기한다.(【별표 1】 정조 장서인의 종류)

1) 별호인(別號印)

별호인은 성명인(姓名印), 표자인(表字印)과 함께 조선시대 문인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던 인장이다. 정조의 별호인으로는 세 가지를 확인했다. <홍재(弘齋)>, <만천명월주인옹(萬川明月主人翁)>, <시재(耆齋)>이다. 이중에서 <홍재>는 16종이나 된다. 각각의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자.

고 확인할 수 있는 사례는 확인하지 못했다.

3) 규장각의 분류 오류로 인해 조선본이 중국본으로 분류된 경우도 있지만, 이번 조사에서는 시간 제약으로 인해 조사에 포함시키지 못했다.

① 〈홍재(弘齋)〉

정조는 자신이 공부하는 곳에 ‘홍재(弘齋)’라는 편액을 걸었다. 정조는 학문의 최고 경지가 백성들에게 인정(仁政)을 베풀는 것이라고 인식했다. 단순히 책 속에 담긴 지식을 얻기 위한 공부가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인정을 베풀기 위한 공부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자신은 아직 그 경지에는 이르지 못했다고 여겼다. 그 방법으로 정조는 뜻을 크게 가져야 한다고 생각했다. 작은 일에 얹매일 게 아니라 세상을 크게 보고 멀리 생각해야 한다고 여겼다. 그것이 정치가의 길이고 인정을 베풀는 것이라 본 것이다. 갈수록 자신의 책임감이 크다는 것을 느낀 정조는 『논어』「태백(泰伯)」편에 나오는 다음의 이야기를 떠올렸다.

증자가 말했다. “선비는 뜻이 크고 굳세지 않으면 안된다. 임무는 무겁고 갈 길은 멀기 때문이다. 인정(仁政)의 실현을 자신의 임무로 여기고 있으니 얼마나 무겁겠는가? 죽은 뒤에나 그만둘 수 있으니 얼마나 먼 길이겠는가?”

군주는 인정을 베풀어야 하는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그 일은 군주 마음대로 그만 들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은가. 자신이 죽은 뒤에야 그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다. 살아있는 동안에는 결코 그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이다. 평생을 가야 할 길이니 얼마나 먼 길인가. 정조는 바로 여기서 ‘홍(弘)’자를 가져다가 자신의 서재 이름으로 삼았던 것이다. 정조는 이 호를 평생 부적처럼 가슴에 품고 살았다. 오로지 인정(仁政)을 베풀겠다는 큰 뜻을 펼치기 위해 준비하고 준비했던 것이다. 그리고 이를 인장에 새겨 자신이 읽은 책에 찍었다. 정조의 장서인은 수십 종에 이르지만 ‘홍재’라고 새긴 인장을 가장 많이 사용하였다. 세손 시절이나 등극 후나 모두 사용하였다.

② 〈만천명월주인옹(萬川明月主人翁)〉

정조는 만년에 자신을 ‘만천명월주인옹(萬川明月主人翁)’이라 하고, 그 연유를 적은 〈만천명월주인옹자서(萬川明月主人翁自序)〉를 지었다. 1798년 12월 3일의 일이다. 정조는 자신을 달에 비유하고 세상 사람들을 물에 비유하였다. 세상의 모든

물을 비추고 있는 달을 자신에 비유한 것이다. 세상에는 흐르는 물도 있고 멈춰 있는 물도 있으며, 바다처럼 넓은 물도 있고, 소용돌이치는 물도 있다. 하지만 달은 언제나 그 형태에 따라 똑같이 비춰줄 뿐이다. 이처럼 정조는 스스로를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그들의 역량에 따라 일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존재라고 여겼다. 이는 또 한편으로는 임금과 신하의 거리가 달과 물의 차이처럼 현격하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달이 물속에 있다고 달을 잡기 위해 물속으로 뛰어들 수는 없는 것이다. 이것은 정조가 스스로의 위치를 높인 것으로 신하들이 범접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만천하에 밝힌 것이기도 하다. 정조는 이를 인장에 새겨 사용했는데, 정조 말년의 심경이 잘 드러난 인장이다.

③ <시재(蓍齋)>

정조의 또 다른 호로 보이지만 그 의미를 확인하지 못했다. 다만, ‘시(蓍)’는 점을 치는 도구이므로 『주역(周易)』 공부에 침잠해 있을 때 사용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진궁(震宮)>, <춘궁(春宮)>, <진궁지장(震宮之章)>, <중광지장(重光之章)> 등과 함께 사용하였으므로 세손시절의 인장이다.

2) 신분인(身分印)

신분인은 인장 주인의 신분을 새긴 인장이다. 일반 문인들의 경우에는 많이 사용하지 않았지만 정조는 세손 시절부터 이미 많은 신분인을 책에 찍어 사용하였다. 『주역』에서는 ‘진(震)’이 동방(東方)을 상징한다. 그래서 세자(世子)가 거처하는 곳을 동궁(東宮), 춘궁(春宮), 진궁(震宮)이라 하였다. 정조의 세손시절 인장에 <춘궁(春宮)>, <춘궁소새(春宮小璽)>, <진장(震章)>, <진궁(震宮)>, <진궁규장(震宮圭章)>, <진궁지장(震宮之章)> 등이 많이 사용된 것도 이 때문이다. 또 세자를 ‘이극(貳極)’이라고도 했기 때문에 <이극지장(貳極之章)>이란 인장도 사용했다. 이 밖에 <승화장(承華章)>이란 인장도 많이 사용했다. ‘승화(承華)’는 태자의 궁실(宮室)이나 태자(太子)를 가리킨다. 정조는 세손 시절에 승화루(承華樓)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를 인장에 새겨 사용했던 것이다. 또한 <중광지장(重光之章)>이란

인장도 사용하였다. 중광(重光)은 선왕의 덕을 이어서 거듭 빛나게 한다는 의미이다. 이는 곧 정조 자신이 세손임을 가리키는 말이기도 하다. 훗날 순조는 세자의 서연(書筵)을 중광원(重光院)에서 하라는 지시를 내리기도 하였다.⁴⁾

정조는 등극 후에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는 인장으로 ‘만기(萬機)’란 글자가 들어간 인장을 사용했다. ‘만기(萬機)’는 임금이 처리해야 하는 수많은 정무(政務)를 가리킨다. 임금이 처리해야 하는 일이 만 가지나 될 정도로 많다는 의미이다. 그런 임금의 자리는 힘들고 어려운 것이다. 조금도 쉴 틈이 없다. 많은 일을 처리하고 남은 시간에도 임금은 또 다시 새로운 일을 준비해야 한다. 틈틈이 정조는 경전을 공부하고, 시를 짓고, 글을 쓰며 심신을 달래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 준비를 하였다. 정조는 이런 이유로 〈만기(萬幾)〉, 〈만기여가(萬機餘暇)〉, 〈만기지가(萬機之暇)〉, 〈일일이일만기(一日二日萬幾)〉 등의 인장을 만들어 사용했다. 또한 ‘극(極)’자가 들어간 인장도 2종이나 확인된다. 모두가 별의 중심인 북극성을 가리킨다. 이는 하늘의 별들이 북극성을 중심으로 운행되듯이, 나라도 임금인 자신을 중심으로 운영된다는 것을 뜻한다. 즉 임금인 자신이 모든 것의 표준[極]임을 드러내는 인장이다. 왕이 행위의 표준이 되고 학문의 표준이 되고 문학의 표준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3) 재관인(齋館印)

재관인은 인장의 주인이 공부하거나 생활하는 곳의 이름을 새긴 인장을 가리킨다. 여기에는 통상 재(齋), 관(館), 당(堂), 실(室), 헌(軒) 등이 붙기 때문에 재관인이라 부른다. 정조는 재관인으로 ‘관물헌(觀物軒)’을 새겨 사용했다. 글자체를 다르게 새긴 6종의 인장을 사용했던 것이 확인되었다. 관물헌은 정조가 세손시절 공부하던 곳이다.

4) 『순조실록』, 순조 32년(1832) 9월 10일 : “書筵處所, 旋命以重光院爲之.”

4) 수장인(收藏印)

수장인은 서화나 서책을 소장한다는 의미의 문구를 새긴 인장을 가리킨다. 정조가 사용한 수장인으로는 〈한목보장(翰墨寶藏)〉, 〈세보(世寶)〉, 〈승화장규(承華藏圭)〉, 〈조선국어장서(朝鮮國御藏書)〉 등이 있다. 〈승화장규(承華藏圭)〉는 ‘승화루에 소장된 책에 찍는 인장’이란 의미이다. ‘규(圭)’는 본래 임금이나 신하들이 의식에 사용하는 훌(笏)을 가리키지만, 여기서는 인장이란 의미로 사용되었다. 그 모양이 인장과 닮았기 때문이다. 〈조선국어장서(朝鮮國御藏書)〉는 등극 후 사용한 인장이다. 1781년 2월 13일 『정조실록』의 기록이다.

광묘조(光廟朝, 世祖) 때 우신(儒臣) 양성지(梁誠之)의 건의로 내각에 소장된 서적(書籍)의 뒷면에는 ‘조선국모세어장(朝鮮國某歲御藏)’이라 일컫고 명나라 연호를 쓰며 해서(楷書)로 쓴 인장을, 앞면에는 ‘조선국어장서(朝鮮國御藏書)’라고 일컫고 전서(篆書)로 쓴 인장을 모든 책에 찍어서 영원히 전해 보이도록 하였다. 이 또한 추술(追述)하는 일단(一端)이 되는 것이니, 내각(內閣)에서는 잘 알고 있으라.⁵⁾

〈조선국어장서〉 인장은 바로 세조 때의 고사(故事)를 따라 새긴 인장이라 할 것이다.

5) 감상인(鑑賞印)

감상인은 인장의 주인이 책을 읽었다는 의미로 찍은 인장이다. 정조는 〈승화청상(承華清賞)〉이란 감상인을 새겨 세손 시절에 읽던 책에 두루 찍었다.

6) 한문인(閑文印)

한문인은 ‘한장(閑章)’이라고도 하는데, 개인적인 취향이나 기호, 감정 등이 담긴 시사(詩詞), 격언(格言), 성어(成語) 등을 새긴 인장을 말한다. 한문인은 문인들이

5) 『정조실록』, 정조 5년(1781) 2월 13일 : 教曰：“光廟朝儒臣梁誠之建言，乞令內藏書籍後面圖書，稱‘朝鮮國某歲御藏’，書大明年號，以楷字書之。前面圖書，稱‘朝鮮國御藏書’，以篆字書編印諸冊，昭示萬世。此亦追述之一端，內閣知悉。”

자신의 감정을 담아 서화작품 등에 찍어 운치를 더했는데, 장서인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많았다. 정조는 12종의 한문인을 확인하였다.

① <대문장자육경래(大文章自六經來), 독서유삼도안도구도심도(讀書有三到眼到口到心到). 작문유삼도기도신도식도(作文有三到氣到神到識到)>

이 인장에 새겨진 글은 ‘훌륭한 문장은 육경(六經)에서 나온다. 독서(讀書)에는 삼도(三到)가 있으니 안도(眼到), 구도(口到), 심도(心到)이다. 작문(作文)에는 삼도(三到)가 있으니 기도(氣到), 신도(神到), 식도(識到)이다’라는 의미이다. 훌륭한 문장은 육경에서 나오므로 경전을 열심히 읽어야 하며, 독서는 눈, 입, 마음을 집중해야 하고, 좋은 글은 기(氣), 신(神), 식(識)이 갖추어져야 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 정조의 문장관이 잘 드러난 인장이다. 여기서 ‘독서유삼도안도구도심도(讀書有三到眼到口到心到)’는 주자(朱子)의 말이다.

② <옹서만권(擁書萬卷)>

‘만권의 책을 안고 있다’는 뜻으로 장서가 많은 것을 가리킨다.

③ <여산여부여강여릉여천지방지여월지항여일지승여남산지수여송백지무(如山如阜如岡如陵如川之方至如月之恒如日之升如南山之壽如松柏之茂)>

『시경(詩經)』 「소아(小雅)」 <천보(天保)>에 있는 축수(祝壽)의 말을 모은 것으로 ‘여(如)’자가 9개가 있어 ‘구여(九如)’라 부른다. ‘산과 같고, 언덕과 같고, 강(岡)과 같고, 능(陵)과 같고, 넷물이 밀려온 것과 같고, 달이 항상 순환하는 것과 같고, 해가 떠오르는 것과 같고, 남산처럼 만수를 누리고, 송백처럼 무성하다’는 의미이다.

④ <하가일일무차군(何可一日無此君)>

‘어찌 하루라도 차군(此君)이 없어서야 되겠는가?’라는 의미인데, 본래는 대나무를 좋아했던 왕자유(王子猷)가 대나무를 ‘차군(此君)’이라 가리킨 데서 유래했다. 후대에는 자신이 좋아하는 대상을 ‘차군(此君)’이라 하는 경우가 많다.

⑤ 〈운작심월작성(雲作心月作性)〉

‘구름으로 마음을 삼고 달로써 성품을 삼는다’라는 의미이다. 구름과 달을 좋아한다는 마음을 표현한 것이다.

⑥ 〈연월자청진(煙月資清眞)〉

당나라 시인 유신허(劉慎虛)의 시 〈기방관(寄防關)〉의 한 구로서 ‘연월(煙月)이 청진(清眞)함의 자료가 된다’는 뜻이다.

⑦ 〈취경작사(炊經酌史)〉

‘경전(經傳)으로 밥을 짓고 사서(史書)로서 찬질한다’는 의미로 늘 경사(經史)를 공부한다는 뜻으로 새긴 인장이다.

⑧ 〈정구팔황호월일가(庭懼八荒胡越一家)〉

‘정구팔황(庭衢八荒)’은 유령(劉伶)의 〈주덕송(酒德頌)〉에 나오는 말이다. ‘정구(庭衢)’는 뜰과 거리라는 의미이고, ‘팔황(八荒)’은 온 세상의 끝을 의미한다. 본문은 ‘有大人先生，以天地爲一朝，萬期爲須臾，日月爲局牖，八荒爲庭衢.’(덕이 높고 훌륭한 분은 천지가 생겨난 것을 하루로 여기고 만년을 잠깐이라 여기며 해와 달을 문과 창으로 여기고 세상의 끝을 뜰과 길로 여긴다)이다. ‘호월일가(胡越一家)’는 『자치통감』(당 태종 정관 7년)에 나오는 말인데, ‘사해일가(四海一家)’와 같은 의미이다. 온 나라가 한 집안과 같다는 말이다. 사는 곳이 다르고 생각이 달라도 모두가 조선이라는 한 집안에 사는 사람들과 마찬가지라는 의미이다. 이는 신하들에게 정조의 생각을 극명하게 보여준 인장이다.

⑨ 〈탕탕평평평탕탕(蕩蕩平平平平蕩蕩)〉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다는 ‘탕평(蕩平)’의 의미가 담겨 있는 인장이다.

⑩ 〈규벽충휘(奎壁充輝)〉

규벽(奎壁)은 28수(宿) 중에서 규수(奎宿)와 벽수(壁宿)를 가리키는데, 이들은

문운(文運)을 맡고 있다. 이 인장은 ‘규벽(奎壁)이 가득 빛난다’는 뜻으로서 문운이 융성함을 가리킨다.

⑪ <○○二十四代衰越四千餘年>

글자가 보이지 않아 판독이 어렵다. 중국의 24왕조의 역사를 훑고 4000년 역사 를 포폄한다는 의미의 6자구의 짹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중에서 ④~⑦과 ⑪은 사용례가 1회밖에 없어 특별히 제작한 인장으로 보인다. 이상의 내용을 표로 정리하면 【별표 2】와 같다.

3. 정조 장서인의 특징

정조의 장서인은 일반 문인들의 장서인과 비교해볼 때 몇 가지 측면에서 특징을 찾을 수 있다. 가장 두드러진 점은 인문(印文)의 내용과 장서인의 위치에 있으며, 사용 시기와 서적의 내용에 따라 각기 다른 장서인을 사용했다는 점도 그 특징으로 들 수 있다.

1) 인문의 내용

정조의 인장은 임금의 인장이란 면에서 일반 문인들의 인장과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가장 큰 차이는 인문(印文)에 있다. 일반 문인들의 인장은 본관을 새긴 ‘향관인(鄉貫印)’과 ‘성명인’, ‘자호인’이 중심이 되지만, 정조의 장서인에는 ‘성명인’, ‘자호인’은 물론 ‘직관인’이 전혀 없다. 무엇 때문일까? 정조가 세손시절에 외조부인 홍봉한(洪鳳漢, 1713~1778)에게 보낸 1772년 5월 3일자 편지에서 그 이유를 확인할 수 있다.

책에는 도장을 찍지 않을 수 없으므로 이제 도장을 새겨 찍으려 합니다. 이름을 새기고 자(字)를 새기는 것은 궐 밖 사대부들이 표시하는 것이니 그것을 법식으로 삼는 것은 맞지 않을 듯합니다. 단지 현호(軒號)만 찍는다면 너무 맛이 없으니 모쪼록 한 책에 세 개의 인장을 찍으려 합니다. 위에는 '모현(某軒)', 가운데는 '(某宮之章)'이라 하고 아래에는 뭐라 하면 좋을까요? 어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편지로 자세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⁶⁾

이 편지 내용대로라면 정조는 세손시절인 1772년에 인장을 새겨 책에 찍으려 했다는 게 확인된다. 어쩌면 1772년 이전에는 장서인을 사용하지 않았을지 모른다. 이때부터 인장을 새겨 장서인으로 사용했을 것이다. 그런데, 일반 사대부들과는 달리 성명이나 자호는 새기지 않고, 재관인과 신분인을 찍으려 했다는 게 확인된다. 또한 이렇게 두 방만 찍으면 맛이 없다고 생각하여 또 다른 인장을 새겨 찍으려 했던 것이다. 그런데 정조는 왜 이 일을 외조부와 상의 했을까? 그것은 홍봉한의 부친 홍현보(洪鉉輔, 1680~1740)가 전각에 뛰어났기 때문이었다. 홍현보는 전각에 취미가 있어 「수재도서기(守齋圖書記)」를 남겼는데, 이 글을 통해 자신이 전각에 취미가 많아 여러 가지 인장을 손수 새겼던 사실을 밝혀놓았다.⁷⁾ 홍봉한 또한 부친의 그러한 취미를 이어받았는지 확인할 길은 없지만, 부친을 통해 인장에 관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고, 정조 또한 이러한 외가의 내력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인장 새기는 일을 홍봉한에게 상의했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정조는 〈관물헌〉 같은 현호(軒號)와 〈진궁지장(震宮之章)〉과 같은 인장을 사용하여 정조 편지의 내용을 증명하고 있다. 또한 강희제(康熙帝)를 비롯한 청나라 황제들의 인장 또한 정조의 장서인에 영향을 주었다. 청나라 초기 황제들은 서적을 편찬한 후 서문을 쓰고 끝에 인장을 날인했는데, 정조는 청나라 서적을 수입하면서 그들의 인

6) 김문식, 2013 「장서각에 소장된 『정조어찰첩』의 내용과 특징」, 『정조어찰첩』,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14면. “冊子不可無圖章之印, 故方欲刻而印之. 刻名刻字, 外間士夫標識之事, 似不當以此爲法. 只以軒號印之則太無味, 某條於一冊三印, 而上曰某軒, 中曰某宮之章, 下則下以爲說可乎? 伏未知意下如何, 詳細書敎, 伏望伏望.”

7) 박철상, 2010 「조선후기 문인들의 인장(印章)에 대한 인식(認識)의 일면(一面)」, 『한문교육연구』35권, 한국한문교육학회.

장 사용법은 물론 인문의 내용까지 차용하였다. 강희제의 〈만기여가(萬幾餘暇)〉, 〈체원주인(體元主人)〉 등은 그 대표적인 인장이다.

이후 정조는 아주 다양한 인장을 장서인으로 사용하지만, 대부분 2방에 그치고 있으며, 3방 이상의 인장을 찍는 경우는 1/4이 채 안된다. 정조의 장서인 중에서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는 것은 신분인이다. 세손과 임금이라는 신분을 인장을 통해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당연히 세손시절에 사용하던 인장과 등극 후에 사용한 인장에는 인문상에 차이가 있다. 이는 신분인만 그런 게 아니라, 별호인과 한문인(閑文印) 등 정조가 사용한 모든 인장이 그렇다. 다만, 별호인 중에서 〈홍재(弘齋)〉는 세손시절과 등극후 모두 사용했지만, 새롭게 제작하여 사용했다. 세손시절에 사용하던 인장을 등극후에는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는 그 밖의 인장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단순히 자신이 읽은 책에 소유권을 표시하는 게 아니라, 대외적으로 임금이 보던 책이라는 사실을 과시함과 동시에 신하들에게 무언의 압박을 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또 다른 목적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구분	인문종류	인문내용
세손시절	24종	〈弘齋〉〈著齋〉〈春宮〉〈春宮小璽〉〈震宮〉〈震章〉〈震宮之章〉〈震宮圭章〉〈承華章〉〈承華藏圭〉〈承華清賞〉〈貳極之章〉〈重光之章〉〈觀物軒〉〈翰墨寶藏〉〈世寶〉〈大文章自六經來---〉〈捨書萬卷〉〈如山如阜---〉〈何可一日無此君〉〈雲作心月作性〉〈煙月資清真〉〈炊經酌史〉○○二十四代衰越四千餘年〉
등극후	11종	〈弘齋〉〈萬川明月主人翁〉〈萬幾〉〈萬機餘暇〉〈萬機之暇〉〈一日二日萬幾〉〈極〉〈朝鮮國御藏書〉〈蕩蕩平平平蕩蕩〉〈庭衢八荒胡越一家〉

2) 장서인의 위치

조선시대 문인들의 장서인은 대부분 우측 하단의 광곽에 붙여 위로 찍어 올라간다. 그런데 정조의 장서인은 1~2행을 비워둔 채 2~3행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등극 후에는 우측 하단의 광곽에 붙여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정조가 읽은 책의 상당수는 시강원(侍講院)에 소장되어 있던 책이다. 그리고 이들 서책에는 ‘춘궁(春宮)’, ‘춘방장(春坊藏)’, ‘춘방내(春坊內)’ ‘시강원(侍講院)’ 등의 인장이 찍혀 있다. 따라서 이들은 역대 임금들이 읽던 책이라고 할 수 있다. 정조는 이러한 서책에도 장서인을 상당수 남겨놓았다. 특이한 점은 시강원의 장서라는 인장이 찍혀 있는 면을 피하여 다음 면에 장서인을 날인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때 여백을 찾아 찍는 게 아니라 일정하게 다음면의 우측 하단 1~2행을 비워둔 채 2~3행에서 시작되도록 인장을 찍고 있다. 물론 일부 예외가 있긴 하지만 이러한 원칙은 대부분 지켜지고 있다. 이는 일종의 괴화(避諱)와 같은 행위라 할 수 있는데, 흥미로운 점은 영조(英祖)가 연잉군(延礪君) 시절인 강희(康熙) 40년(1701)에 내사받은 『춘추보편(春秋補編)』에 찍은 그의 장서인에서 이미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그 영조는 내사인이 찍힌 첫 면에 장서인을 찍지 않고, 다음 장의 우측 하단에 ‘연잉군방(延礪君房)’이란 인장을 찍어놓았다. 정조가 장서인을 찍는 또 다른 위치는 중앙 상단이다. 이곳에 찍는 인장은 대부분 큰 인장들인데, ‘진궁(震宮)’, ‘춘궁(春宮)’, ‘춘궁소새(春宮小璽)’, ‘한묵보장(翰墨寶藏)’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3) 서적의 내용에 따른 장서인의 사용



정조 장서인의 또 다른 특징은 서적의 내용에 따라 별도의 인장을 사용했다는 점이다. 하지만 정조는 장서인을 한 방씩 따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지 않았다. 2방 또는 3방씩 묶어서 사용했다. 정조의 장서인으로 가장 많이 사용한 것은 ‘〈홍재(弘齋)〉〈진장(震章)〉’이다. 홍재(弘齋)는 정조의 별호이지만 서재에 편액으로 걸었기 때문에 헌호(軒號)로도 볼 수 있다. 진장(震章)은 ‘진궁지장(震宮之章)’의 줄임말이라 할 수 있다. 정조는 이 인장을 97종의 책에 찍었다. 그 중 고려와 조선 학자들의 문집이 62종이나 된다.



다음으로 많이 사용된 인장은 ‘〈홍재(弘齋)〉×〈승화장(承華章)〉’이다. 총 47종의 책에 찍혀있다. 여기에는 주로 사부(四部) 중에서 자부(子部)에 해당하는 책들이 많다. ‘〈홍재(弘齋)〉×〈진장(震章)〉’과 마찬가지로 별호와 신분인을 찍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승화장(承華章)〉의 경우 ‘세손의 인장’을 의미하는 ‘승화지장(承華之章)’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승화루(承華樓)’에 소장된 책에 찍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가장 주목할 만한 인장은 ‘〈홍재(弘齋)〉×〈승화장규(承華藏圭)〉×〈대문장자육경래(大文章自六經來---)〉’이다. 세손시절에 사용한 장서인인데, 삼경(三經)과 사서(四書) 및 유학(儒學) 경전과 관련된 책등 모두 32종에 찍었다. 특히 여기에는 〈한문인(閑文印)〉 중에서 〈대문장자육경래(大文章自六經來), 독서유삼도안도구도심도(讀書有三到眼到口到心到), 작문유삼도기도신도식도(作文有三到氣到神到識到)〉라는 인장을 함께 찍었는데, 육경에 대한 정조의 인식을 살필 수 있는 중요한 인장이다.



다음으로 많이 사용된 인장은 ‘〈관물현(觀物軒)〉×〈이극지장(貳極之章)〉’이다. 총 31종의 서책에 사용되었다. 이중 28종이 필사본이다. 주로 필사본에 사용한 장서인임을 확인할 수 있다.



정조가 등극 이전에 장서인을 찍은 책이 271종인데,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이를 보면 전체적으로 경사자집(經史子集)의 사부(四部)에 따른 분류를 어느 정도 염두에 두고 장서인을 사용했을 가능성 및 승화루(承華樓), 관물현(觀物軒) 등에 장서를 분류하여 소장했을 가능성도 추정케 한다.

인 문	서책종수	특 징
〈홍재〉〈震章〉	97종	67종이 시문집. 집부(集部)
〈승화清賞〉, 〈홍재〉	23종	집부(集部)
〈홍재〉〈承華章〉	47종	자부(子部)
〈홍재〉〈承華藏圭〉〈大文章自六經來---〉	32종	경부(經部)
〈관물현〉〈貳極之章〉 또는 〈관물현〉〈震宮圭章〉 또는 〈관물현〉〈重光之章〉	39종	필사본
기 타	33종	
합 계	271종	

4. 정조 장서인 조사의 성과

1) 정조 장서인의 규모 확인

정조는 조선의 역대 임금들 중에서 처음으로 개인 장서인을 사용하였다. 하지만 그 전체적인 규모를 파악하지는 못했다. 이번 조사를 통해 처음으로 조선본에 찍힌 인장의 규모가 어느 정도 확인되었다. 모두 71종이나 되지만, 정조가 사용한 인장의 규모를 확정하기는 아직 어렵다. 서화에 찍은 낙관용 인장이나 서책을 출판할 때 찍은 인장이 별도로 존재하고, 그밖에도 편지 폐봉에 찍은 봉함인도 상당수 존재하고 있으며, 게다가 다른 공공기관 및 개인 소장의 서적도 상당수에 이르기 때문이다.

2) 정조 장서인의 표준 확정

정조의 장서인이 찍힌 서적들은 규장각 이외에도 다수 산재되어 있다. 이번 조사를 통해 그 표준을 확정했다는 것은 그런 면에서 중요하다. 진위 여부를 확인할 때 표준이 될 수 있고, 여러 기관에 낙질되어 있는 서적들을 확인할 때에는 기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3) 정조의 조선본 장서 확인

정조 장서 중에서 조선본의 규모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현 전본 중에는 낙질된 게 많이 있지만, 완질을 기준으로 한다면 정조가 세손시절에 가지고 있던 조선본은 244종 1,600여권이다. 월천(月川) 조목(趙穆, 1524~1605)의 장서가 1,400권, 동춘당 송준길(1606~1672)의 장서가 400종 약 2,000권이었던 것과 비교해보면 많다고 할 수 없는 장서다.⁸⁾ 이는 단순히 정조만의 문제가 아니라

8) 조목의 장서에 대해서는 박철상의 「월천 조목의 장서인」(2001. 겨울 『문헌과해석』 17호, 문헌과해석사), 송준길의 장서에 대해서는 손계영의 「藏書印을 통해 본 同春堂 後孫家의 장서 형성 배경」(2009 『古文書研究』 34집, 한국고문서학회) 참조.

당시 조선 지식인 전체의 문제라 할 수 있는 점이다. 조선은 태종대에 계미자를 만든 이래, 세종과 세조를 비롯한 역대 임금들이 계속해서 활자의 주조에 힘을 기울였기 때문에 수많은 책들을 인쇄하여 보급시켜왔다. 그것이 역대 임금들의 중요한 책무중의 하나였다. 하지만 임진왜란을 거치면서 출판 시스템이 붕괴된 것은 물론 왕실에 소장되어 있던 중요한 서적들이 대부분 소실되고 말았다. 효종(孝宗) 대에 와서야 교서관이 조금씩 옛 기능을 회복했지만, 임란이전의 상황을 회복하기는 불가능했다. 장서인을 통해 확인한 정조의 장서는 바로 그러한 당시의 상황을 여실히 증명하고 있다. 특히 임란 이전의 판본이나 필사본이 하나도 없다는 점도 이를 증명하고 있다. 또한 조선본 장서의 50% 이상이 목판본이라는 점도 당시 출판 상황을 가늠해볼 수 있는 중요한 지표라 할 것이다.

판본	서책종수	비고
목판본	150종	
필사본	60종	
활자본	훈련도감자	6종
	무신자	30종
	교서관인서체	18종
	현종실록자	2종
	한구자	3종
	정유자	10종
	임진자	4종
	정리자	5종
	기타	9종
	합계	87종
총계	297종	

이러한 상황 속에서 공부한 정조가 세종시대의 출판문화를 회복하고 싶었던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세손시절에 이미 임진자(壬辰字)를 주조하였고, 등극후에는 정유자(丁酉字), 임인자(壬寅字), 생생자(生生字),

정리자(整理字)를 주조하는 등 세종시대에 벼금가는 출판의 중흥을 이끌었던 것이다. 정조의 장서인은 우리에게 그러한 정조의 생각을 읽을 수 있게 해주고 있다.

4) 정조의 독서편력 확인

정조 장서인은 정조의 독서편력을 확인하는 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눈에 띄는 점은 역대 인물들의 문집을 대부분 읽었다는 점이다. 이는 정조가 세손시절에 이미 우리나라 역대 인물들에 관한 대부분의 정보를 가지고 있었다는 점에서 아주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등극 후 인재등용이나 인물평가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고 할 수 있다. 때문에 어떤 학자와 토론을 해도 오히려 그들을 능가할 수 있었던 것이다. 또한 대부분 2방의 인장을 찍어놓았는데, 3방 이상의 인장을 찍은 경우에는 더욱 특별한 의미를 두었던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은 인장을 찍은 책은 송시열의 문집인 『대로일고(大老逸稿)』이다. 이 책의 경우에는 별도의 인장들을 새겨 찍어놓은 것을 볼 수 있는데, 정조의 관심이 남달랐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장서인은 정조의 독서 편력을 확인하는 데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한다.

5) 정조 조선본 장서의 내력 확인

정조가 읽었던 책 중에서 본래 시강원에 소장되어 있던 책은 70종에 불과하다. 홍문관, 상고, 교서관 및 기타 궐내 전각에 소장되어 있던 서적이 40종이 확인되고, 개인소장의 책도 3종 확인된다. 특히 정조의 장인 김시묵(金時默, 1722~1772)의 장서 2종과 심권(沈權, 1643~1697)의 장서 1종이 정조의 손에 들어간 것도 확인된다. 이밖에 184종은 정조가 직접 마련했을 가능성이 높다. 시강원 장서의 열악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소장처	서책종수	장서인
시강원(侍講院)	70종	〈侍講院〉〈春坊藏〉〈春坊內〉〈春宮〉
홍문관(弘文館)	17종	〈弘文館〉
상고(廂庫)	12종	〈廂庫〉
교서관(校書館)	4종	〈校書館〉〈芸閣藏〉〈外閣藏書之印〉
개인소장	3종	〈金時默印〉2종, 〈沈權〉1종
기타	7종	〈摛文院〉〈寶文閣〉〈延祔君房〉〈惟正司〉〈內標〉
합계	113종	
확인불가	184종	
총계	297종	

6) 장서인 판독 오류의 확인

상당수의 장서인은 이미 알려져 있고 인문도 판독되어 있지만, 오류도 적지 않다. 본 조사를 통해 기존의 판독 오류를 바로 잡을 수 있게 되었다. 아울러 정조의 장서인과 다른 관인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책을 출판할 때 인장을 새겨 넣기도 했는데, 이들은 장서인이 아니다. 예를 들어 『어전친막제명첩(御前親幕題名帖)』에 새겨 넣은 정조의 인장이나 『어정인서록(御定人瑞錄)』의 봉면에 있는 〈時萬時億〉, 〈八千歲爲春爲秋〉는 장서인이 아니다.

5. 향후과제

이번 조사대상은 조선본으로 한정했다. 그러나 정조의 장서 전체 규모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중국본에 대한 조사도 필요하다. 특히 정조는 중국본을 체계적으로 수집 및 연구하였기 때문에 중국본에 대한 조사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또한 장서인의 종류도 71종이 확인됐지만, 정조는 장서인 이외에도 낙관용이나 출판용으로도 많은 인장을 사용하였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조사도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어정인서록(御定人瑞錄)』의 봉면(封面)에 찍힌 인장 <시만시억(時萬時億)>과 <팔천세위춘위추(八千歲爲春爲秋)>은 장서인이 아니기 때문에 제외하였지만, 의미가 있는 인장이다. 모두가 장수를 기원하는 의미의 인장들인데, 『어정인서록』을 간행할 당시에 별도로 만들어 새겼던 것이다. 이 인장들로 어정서에 찍힌 것이므로 정조의 인장이 분명하다. 또한 『고금도서집성』에 찍혀있는 <조선인(朝鮮人)>이나, 다른 기관에 소장되어 있는 『삼경사서정문』에 찍혀있는 <진리상생(震離相生)> 등과 같이 중국본이나 타기관에 소장된 자료 중에도 확인되지 않은 정조의 장서인이 있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조사와 정리를 거친 뒤에야 정조의 장서인은 물론 인장 사용 범위도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정조의 장서를 재구하는 일도 최종적으로 가능하다 할 것이다. 또한 현재 규장각 고서 해제에는 정조의 장서인에 대한 언급이 거의 없었다. 이번 연구를 통해 기존에 읽지 못했던 정조의 한문인, 수장인을 밝히고, 부정확하게 판독한 인문을 바로잡았으므로 해제와 목록 부분에서 해당 내용을 수정하여 목록의 정확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논문투고일(2014. 10. 30), 심사일(2014. 11. 22), 게재확정일(2014. 12. 14)



〈時萬時億〉



〈八千歲爲春爲秋〉



〈朝鮮人〉



〈震離相生〉

참고문헌

- 김문식, 2013 「장서각에 소장된 《정조어찰첩》의 내용과 특징」, 『정조어찰첩』,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 박철상, 2010 「조선후기 문인들의 인장(印章)에 대한 인식(認識)의 일면(一面)」, 『한국교육연구』 35권, 한국한문교육학회.
- _____, 2001 「월천 조목의 장서인」, 『문헌과 해석』, 통권17호, 문헌과해석사.
- 손계영, 2009.2 「藏書印을 통해 본 同春堂 後孫家의 장서 형성 배경」, 『古文書研究』 34집, 한국고문서학회.
- 『朝鮮王朝實錄』, 국사편찬위원회 웹.
-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서울대학교(<http://e-kyujanggak.snu.ac.kr>)
- 왕실도서관 디지털 아카이브, 한국학중앙연구원(<http://yoksa.aks.ac.kr>)
- 한국역대인물종합정보시스템(<http://people.aks.ac.kr>)
- 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http://koreanhistory.or.kr>)
- 장서각 국학자료조사실 편, 『영조대왕』, 한국학중앙연구원, 2011.

Abstract**Jeongjo's Collection Seal**

- Especially on Kyujanggak books printed in Joseon -

Kim Youngjin · Park Chulsang · Baek Seungho

Jeongjo had most amount of collection seal and love those seals among Joseon Kings. In this thesis reconstructed the list of Jeongjo's book collection and clarified his reading history through the collection seal. Jeongjo had 71 collection seals which imprinted on the books printed in Joseon. The seals were classified by the seal's content ; 20 Byolho (literary name) seals, 25 Sinbun(identification) seals, 6 Jaeguan seals, 7 Sujang (storage) seals, 1 Gamsang(appreciation) seal, 12 Hanmun seals.

Also the message, imprinted location and usage of collection seal was examined in this thesis. The king wanted to look different in the usage of collection seal from other literati. In other word, Jeongjo did not use the Seongmyeong(name) seal and Pyoja(name received upon reaching adulthood) seal. Instead, He used Heonho seal and the seals which represented he was the eldest son of Crown Prince and he was the king.

Usually the collection seal of literati was started from right and downside of the book's border. But the king's seal was started from 2nd or 3rd line with 1st line being empty. After he ascent to the throne, the collection seal was imprinted right beside of the right and downside of the book's border.

The standard of Jeongjo's collection seals was confirmed through the research. Also, the scale and the present condition of Jeongjo's book collection. In addition, the reading errors of seal message were corrected. Even though the whole of the king's books were not examined but the research would be the researching cornerstone of Jeongjo's collection seal.

Key words : Jeongjo, Collection seal, Kyujanggak, Books printed in Joseon, King.

【별표 1】 정조 장서인의 종류

1. 弘齋

			
文谷集	易學啓蒙要解	朱子語類抄	一松先生文集

			
農巖集	錦溪集	華城奉壽堂進饌賡載軸	中庸諺解

唐宋八子百選	唐宋八子百選	陸約	史記英選

佛說大報父母恩重 經科判	大老逸稿	御製花山龍珠寺奉佛祈 福偈	恩賜五經百選

2. 萬川明月主人翁/蓍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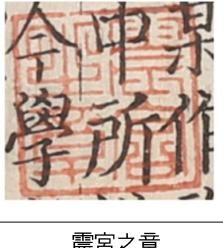
萬川明月主人翁	萬川明月主人翁	萬川明月主人翁	蓍齋
御定杜陸千選	太學銀杯詩集	太學銀杯詩集	東岳先生集

3. 春宮

			
春宮	春宮	春宮	春宮
魯史零言	壽民妙詮	大老逸稿	大老逸稿

			
春宮小璽	春宮小璽		
明史綱目	易學啓蒙集箋		

4. 震宮

			
震宮	震章	震宮之章	震宮之章
東岳先生集	警民編	易學啓蒙要解	謚狀

Zhen Gong Zu Zhang			
Cao Xia Ji			

5. 承華

Cheng Hua Zhang	Cheng Hua Qing Shang	Cheng Hua Cang Zhu	
Zhu Zi Yu La Chao	Yi Song Sheng Wen Ji	Yi Xue Kai Meng Yao Jie	

6. 貳極

Er Ji Zhang	Er Ji Zhang	Er Ji Zhang	
Hai Dong Ye Yan	Nong Yan Ji	Meng Zi Yan Jie	

7. 重光

重光之章			
四七續編			

8. 萬機

萬機	萬機之暇	萬機之暇	萬機之暇
唐宋八子百選	錦溪集	唐宋八子百選	兩京手圈

萬機餘暇	萬機餘暇	一日二日萬幾	
史記英選	御製花山龍珠寺奉佛 祈福偈	華城奉壽堂進饌賚載軸	

9. 極

			
極	極		
唐宋八子百選	陸約		

10. 觀物軒

			
觀物軒	觀物軒	觀物軒	觀物軒
四七續編	蒼霞集	海東野言	孟子諺解

			
觀物軒	觀物軒		
易學啓蒙集箋	謚狀		

11. 收藏印

世寶	世寶	世寶	世寶
南漢日記	壽民妙詮	易學啓蒙集箋	大老逸稿

究源委載多時指承與紀猶三國	以禮義間方存王麗以來儀	朝鮮國御藏書	
翰墨寶藏	唐宋八子百選		

大文章自六經來---	搃書萬卷	如山如阜-----	何可一日無此君
易學啓蒙要解	易學啓蒙集箋	華城奉壽堂進饌賚載軸	大老逸稿

12. 閑文印

雲作心月作性	煙月資清真	煥經酌史	蕩蕩平平平蕩蕩
大老逸稿	大老逸稿	大老逸稿	御定杜陸千選

上美谷益於下 一本出治之原深 一也猗我列 元氣也學以養	大學	其軍破而 發黜賢良 三經四書正文	代一也猗我列 之元氣也學以養 於上美俗溢於下
蕩蕩平平平蕩蕩	奎壁充輝	〇〇二十四代衰越四千餘年	庭衢八荒胡越一家
太學銀杯詩集		資治通鑑綱目	太學銀杯詩集

【별표 2】 정조 장서인의 인문 내용별 분류표

인문내용분류	관련어	인문내용	종류	비고
별호인(別號印)		弘齋	16	
		萬川明月主人翁	3	
		蓍齋	1	
신분인(身分印)	春宮	春宮	4	
		春宮小璽	2	
	震宮	震宮	1	
		震章	1	
		震宮之章	2	
		震宮圭章	1	
	承華	承華章	1	
		承華藏圭	1	收藏印
		承華清賞	1	鑑賞印
	貳極	貳極之章	3	
	重光	重光之章	1	
萬機(幾)	萬機	萬幾	1	
		萬機餘暇	2	
		萬機之暇	3	
		一日二日萬幾	1	
	極	極	2	
재관인(齋館印)		觀物軒	6	
수장인(收藏印)		翰墨寶藏	1	
		世寶	4	
		朝鮮國御藏書	1	
한문인(閑文印)		大文章自六經來	1	
		撝書萬卷	1	
		如山如阜-----	1	
		何可一日無此君	1	
		雲作心月作性	1	
		煙月資清真	1	
		炊經酌史	1	
		蕩蕩平平平蕩蕩	2	
		庭衢八荒胡越一家	1	
		奎壁充輝	1	
합 계		71		